

정부, 휴일연장근무 법제화 의사 철회



시장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법제화 등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증 거쳐 추진 하는 것이 옳은 포석

고용노동부가 휴일근무를 법정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사실상 철회했다.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당분간 보류하겠다고 두루뭉술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는 사실상 법 개정 추진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성급한 법제화가 시장 현실에는 상당히 부합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법을 제정해야한다는 것을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것이다.

단순한 근무시간 조정으로는 고용창출 어렵다.

지난 3탄까지 본 기사에서 보도한 내용처럼 현재 고용시장은 이론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지 않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연장근로 수당이 곧 생계로 직결되며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그 만큼의 고용창출은 사실상 어렵다. 영세한 업체들은 지금도 사람 구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자동차업계의 목소리인 한국자동차신문(KMN)의 투쟁적인 법 개정 철회요구 반영.

이번 법 개정 철회는 그 동안 줄기차게 보도했던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물론 그 내용들은 우리 자동차업계 전체의 목소리이며, 본 지는 그러한 목소리들을 담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투쟁하였을 뿐이다. 자동차업계의 하나된 목소리가 정부의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다.

홍명희 기자

Contents

◆ 〈기획연재〉 부산국제모터쇼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자동차 역사〉 현대자동차 '코티나' ◆ 〈신차〉 쌍용자동차 '렉스턴W' ◆ 만도, 브라질서 자동차 부품 생산한다.	02면
◆ 〈기획연재〉 교정검사, 이제는 조정이 필요하다. ◆ 〈자동차 신기술〉 GM '기회의 창' ◆ 타이어를 알면 자동차가 보인다.	03면
◆ 〈기획연재〉 계측기 관련 성적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나가야 ◆ 〈법률상식〉 고소 취소 후 다시 고소해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 사장님! 협력사 지원금 받아주세요.	04면
◆ 고유가시대에 살펴보는 연비향상 기술 ◆ 이동통신사를 자동차업체가 필요해. ◆ 화질품 유통기한에 주의하세요.	05면
◆ 〈지식백과〉 보톡스의 원리. ◆ 애정남(애매한 교통사항을 정해주는 남자)	06면
◆ 〈여행〉 경남 창녕 '우포늪' ◆ 〈스포츠이야기〉 주연이 된 조연, 페이스메이커의 우승. ◆ 〈사설〉 근로시간 단축철회, 정부의 옳은 방향 선회에 찬성	07면

한국자동차신문사 소개

자동차 부품업체를 지원하는 민간 자율 공익(비영리) 법인인 한국자동차산업시험연구소(KMIR)의 부설 기관

한국자동차신문(KMN)은 2011년 8월 10일 설립된 신문사로서, 한국자동차산업시험연구소(KMIR)의 부설기관입니다. 모체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비영리 신문사로, 수익금 전액을 신문간행 및 자동차부품업체의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 업계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우리의 이야기를 전달하며, 우리 업계가 하나로 힘을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고

자,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만들어진 신문입니다. 현재 8,500여 자동차부품협력사(완성차 포함)와 종사자 약 80만 명 및 50만명 이상의 자동차 관련 업계와 종사자들이 구독하고 있는 신문입니다. 완성차 및 부품협력사의 동향, 자동차 신기술 정보, 대정부 정책 제언, 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 등의 자동차 관련 소식을 비롯하여 정치, 경제, 사회의 기사는 물론, 생활의 팁, 여행지, 운동정보, 역사이야기

등 다채롭고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한국자동차신문(KMN)은 우리 자동차업계를 위한 신문입니다. 항상 자동차업계를 생각하고 자동차업계를 위한 목소리를 내며, 자동차업계를 든든히 지원하는 그런 신문사가 되겠습니다. 알차고 진실한 내용을 실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우리 자동차업계를 발전시키는 큰 초석이 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동차 부품의 품질향상 ! 전문적인 연구와 든든한 지원에서 시작됩니다.

본 연구소는 국내 자동차부품업체의 기술적, 재정적인 지원을 위한 순수 비영리 기관입니다.

소모성 유류 구매비용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국내 소재 자동차부품협력사
2. 지원품목 : 방청유, 세척제
3. 지원규모 : 최대 3억원까지 현금지원

검교정 검사비용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국내 소재 자동차부품협력사
2. 지원품목 : 생산 및 시험측정장비 검교정검사 비용
3. 지원규모 : 연간 검교정검사비용 1,000만원 한도 내 40% 현금지원



한국자동차산업시험연구소
Korea Motor Industry Research Institution

2003. 11 현대, 기아자동차그룹,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KAP),
2003.11. 한국자동차공업협회(KAMA) 및 관계기관(정부기관)등의 협조로 설립,
계열 한국자동차신문사(KMN)설립
2011.08. 계열 비영리, 한국자동차신문사(KMN) 설립.
2012.05.15. 한국자동차신문(KMN) 창간.

“Welcome to KMIR”
자동차부품협력사 지원(비영리)기관



기획 연재

부산국제모터쇼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

제4탄 막 내린 부산국제모터쇼,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3탄까지의 요약

- ◆ 누구를 위한 모터쇼인가?
- ◆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안중에도 없는 부산국제모터쇼!
- ◆ 운영, 공개를 회피하는 부산국제모터쇼의 벅스코(BEXCO) 담당자와 책임간부!
- ◆ 벅스코(BEXCO)의 부산국제모터쇼 수익금은 어디에?

10일간의 부산국제모터쇼가 막을 내렸다.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했고 수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겉으로는 화려한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과연 국민들과 부산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자동차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부품업체들에게는 무슨 도움이 됐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전혀 아니다' 이다.

지난달 29일 부산국제모터쇼 부대행사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가 열렸다. KOTRA가 주관한 이 행사에서 몇몇 부



품 업체들이 수출 상담을 진행하긴 하였다. 그러나 정말 극히 일부분의 얘기다.

8,500여 자동차부품협력사 중에서 고작 120 업체만 참가해서 그중에서 또 몇몇 업체들만 그런 기회를 얻은 것이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자동차 모터쇼를 통한 수익으로 자동차부품 업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을 내 놓아야..

국제모터쇼 나름대로는 완성차 홍보 뿐 아니라 부품 전시에도 시선을 주기 위해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 모터

쇼부터는 먼저 많은 부품협력사들을 포용하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몇몇 협력사들을 통한 보여주기 식의 수출 상담이나 전시 등은 사실 수많은 다른 협력사들에게는 공감 이 되지 않는다.

정말 부품업체에 포인트를 맞추려면 모터쇼 수익금의 일부라도 투입하여 많은 부품업체들을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 모두가 원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의 방향으로 아이টে를 구상하여야 할 것이다.

이명석 기자

자동차 역사

현대의 첫 차, 코티나(Cortina)

코티나는 현대차가 포니를 개발하기 전인 1960년대 후반부터 포드의 코티나를 들여와 조립 생산한 현대의 첫번째 자동차다. 현대 코티나는 1968년에 태어나 1983년 5월까지 생산되었으며 우리나라의 당시 도로여건에 맞춰 개발된 첫 차였으나, 처음 코티나를 들여와 조립 후 판매를 했을 당시에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었다. 자동차 부품을 침수 부품으로 만들어 고장이 잦았고, 미국 도로에 맞춰 만든 차였기에 우리나라 도로사정에서는 맞지 않았다.

1969년 9월 영·호남 지역의 대홍수 때 침수된 부품으로 조립한 차들로 인해 무더기 차 반납 소동이 일어나는 등의 이유로 코티나는 2년만에 생산을 중단하고 2세대 코티나를 1971년부터 다시 생산을 하게 된다. 이런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한 새로운 코티나는 71년부터



5년동안 2만여 대가 팔릴 정도로 인기를 얻게 된다. 최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의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 코티나는 1308대가 여전히 국내에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에 판매된 차량 중 상당수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코티나는 4세대까지 출시됐는데, 1세대 코티나는 1968년 국내에서 처음 생산이 되었고 엔진은 1598cc 직렬 4기통, 최고출력 75마력, 최고 속도는 160 km/h였다.

강명찬 기자

부품업체

만도, 브라질서 자동차부품 생산한다.



만도의 브라질 자동차 부품공장이 준공됐다. 앞으로 이곳에서 연간 50만개의 ABS를 생산하게 된다.

한라그룹 산하 자동차부품 계열사인 만도는 지난달 25일(현지시각) 브라질 상파울루주 리메이라(Limeira)시에 위치한 만도 브라질법인(MCB, Mando Corporation do Brasil)에서 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준공식에는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을 비롯, 박상식 상파울루 총영사, 오르란도 조비코 리메이라시 시장, 현대차·GM 등 현지 완성차 고객사 대표, 신사

현 만도 대표이사 등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공장은 총면적 5만5520㎡, 건평 1만3200㎡ 규모로 연 50만대의 ABS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ABS는 운전자가 너무 강하게 브레이크를 밟음으로써 차체가 방향제어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브레이킹의 강도를 제어하는 전자장비다. 현재 주요 자동차 소비자 대부분의 완성차에 기본 탑재되고 있으며, 브라질은 오는 2014년부터 ABS 설치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만도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공장 건설을 준비해 왔으며 오는 2016년까지 ABS 생산능력을 연 100만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캘리포니아 조항제품 등 생산 품목을 늘려 나갈 예정이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ABS는 이르면 올 9월부터 현대차 및 GM 브라질 현지 공장에 공급하게 된다.

진성환 기자

신 차

뉴 프리미엄 SUV '쌍용 렉스턴W'

있는 국산 SUV 시장 틈새를 렉스턴이 가지고 있던 고급 SUV 이미지를 통해 공략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3세대로 진화한 렉스턴을 살펴보자. 2001년 처음 공개된 렉스턴을 1세대라 칭하고, 현재는 체어맨 H라 명명된 그 당시 '체어맨'의 디자인을 렉스턴에 입힌 렉스턴 2를 2세대라 칭하게 된다. 2세대의 디자인은 체어맨과 같이 비교적 유사한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3세대로 변하며 부드러운에서 다시 날이 서있는 디자인을 강조함과 동시에 세련미를 더한 디자인을 보여준다. 투톤컬러 바디를 강조하여 오프로더 혹은 강인한 이미지를 만들어낸 1세대 렉스턴과는 달리 투톤컬러의 비율을 확연하게 줄이고 프런티부와 리어부의 디테일 디자인을 세련되게 다듬어 도심형 SUV임을 강조하고 있다.

송상현 기자



지난 24일 개막한 부산모터쇼에서 쌍용차가 렉스턴W를 앞세워 77일간의 장기간 파업과 마힌드라 그룹으로 인수 등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난 명성들을 하나씩 되찾고 있다.

한국차의 역사에 있어서 렉스턴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차량이다. '대한민국 1%'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내걸고 시행한 프로모션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프리미엄 이미지를 부각시킨 첫 SUV였고, 출시 당시

숫자를 내세운 형태의 광고가 넘쳐났던 시기에 '이미지'를 강조했던 렉스턴의 광고는 소비자에게 비교적 잘 통하였다. 3세대로 분류된 이번 렉스턴W는 자사의 플래그십 SUV에 초대형 세단인 '체어맨 W'가 내포한 'W'라는 알파벳을 더해 월드 클래스 수준으로 품격을 한 차원 높여 'Work of Art'(결작,명작)로 새롭게 탄생했다는 의미에서 W를 붙이며 그레이드 상승을 노리고 있다. 보다 스포티하고 섹시함을 강조하고

폭력은 사랑을 이기지 못합니다

학교폭력,
더이상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가 보다 즐거운 곳이 될 수 있도록
가정과 사회 모두가 힘을 보태 주세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이
폭력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듭니다

제4탄 교정기관들, 단편적 이익만 추구해선 안된다

교정검사 이제는 조정이 필요하다.

3탄까지의 요약.

- ◆ 교정기관들의 무분별한 수수료 할인이 문제..
- ◆ 수수료 할인의 문제는 결국 품질로 이어져 우리 협력사들이 피해를..
- ◆ 수수료 할인으로 단편적 이익에만 눈먼 교정기관은 퇴출시켜야..

지금껏 언급했듯 많은 교정기관들이 무분별한 수수료 할인을 통해 과열 경쟁을 하고 있고 그 때문에 교정 품질이 저하되어 부품협력사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러한 교정기관들은 단기적으로는 협력사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켜주어 도움이 되는 듯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품질불량과 생산성 저하를 야기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 자동차 업계를 위해서는 이러한 교정기관들은 퇴출되어야 마땅하다.

한국자동차산업시험연구소(KMIR)에서는 검교정검사 비용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지원사업의 첫 번째 목표는 자동차부품협력사들의 품질향상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재정부담 완화에 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목표가 있으니, 바로 교정검사 수수료 조정을 통한 교정검사 과열 경쟁완화다.



교정기관들의 협조를 받아 국가교정수수료 기준에 맞는 표준교정수수료 표를 만들었으며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통한 검교정검사 이용을 권고하고 있다.

부품협력사 입장에서 교정기관에서 할인을 해 준다는데 왜 못하게 하나며 불만을 표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우리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할인이 아닌 제 값의 올바른 교정검사를 통해 우리가 만드는 자동차부품의 품질을 높여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미래를 향한 더욱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김병수 기자

자동차 신기술

GM의 '기회의 창' (Windows of Opportunity)



FOOFU: High-tech take on window steam finger drawing

현재의 자동차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하고 있다. 특히나 아날로그였던 자동차 기술들이 디지털시대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디지털 기기로서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 요즘 자동차들의 트렌드라 할 수 있겠다.

2012년 1월 19일에 GM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발표하였다. 그것은 '기회의 창' (Windows of Opportunity)이란 이름의 신기술이다. GM과 이스라엘의 대학이 함께 개발한 이 기술의 핵심은 자동차 유리에 터치스크린 화면을 띄우는 것이다. 자동차 뒷자석에 앉은 승객과 다른 외부 세계를 연결해주는 이 신기술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상상력을 구현해낼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현재까지 이 신기술에 4가지 앱이 최종 개발되어 있는데 첫



SPINDOW: Real-time peek into other users' window views

번째 'Otto' 앱은 창문에 캐릭터가 나타나서 창밖 지형물에 따라 반응하는 것으로 마치 차와 같은 속도로 달리는 캐릭터를 보는 느낌을 주게 한다. 두번째 'Foofu' 앱은 창문에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는데 예전에 우리가 입김을 불어 그림을 그리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주지만 다양한 색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세번째 'Pond' 앱은 다른 차량의 시스템의 사용자와 음악을 공유하고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기술이다. 마지막으로 'Spindow' 앱이 있는데 이 기술은 자동차 안에서 창문에 원하는 곳의 풍경을 구현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기술이 적용된다면 시내 한복판에서 길이 막히고 답답한 상황에서 옆의 차량과 음악을 공유하고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창문에 꼭 막힌 도시의 풍경이 아닌 확 트인 해변가의 모습을 보면서 다닐 수 있게 될 것이다.

'기회의 창'은 앞으로도 사람들의 상상력을 통해서 더욱 더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기술의 이름처럼 우리의 미래에 어떤 기회의 창이 열리게 될지 큰 기대를 해 본다.

방민혁 기자

■ 타이어를 알면 자동차가 보인다

자동차 관리 타이어 공기압 점검부터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동차 공기압에 대해 큰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자동차의 적정 공기압 유지만으로도 연비향상을 통한 에너지비용 절감과 안전운전, 환경보호라는 기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주목을 끌고 있다.

한국제품안전학회에 따르면 국내 운행차량의 44.2%가 저공기압 상태로 운전 중에 있으며, 적정 공기압보다 무려 10%이상 낮은 상태로 운전중인 자동차도 14%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적정타이어 공기압 관리만으로 연비를 향상시킬 수 있고, 타이어 수명을 늘릴 수 있다. 타이어공기압이 20%, 40% 부족 시 연비는 각각 2.3%, 6.0% 정도가 감소하고, 타이어 수명은 10%부족 시 15% 감소하게 된다.

또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일 수 있다. 2000cc 자동차 10만대가 적정공기압을 유지한 상태에서 연간 15000 km를 달리면 30년생 소나무 2680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인 약32t을 감소시킬 수 있다.

더군다나 타이어 공기압은 안전에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타이어의 공기압이 과다하거나 부족할 시 급제동 및 급선회 중 타이어가 이탈하거나 고속주행 중 타이어의 파손 등의 현상이 발생하기 쉽

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0년 타이어 관련 교통사고 건수는 37건이 발생하여 6명이 사망하는 등 교통사고 치사율이 16.2%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타이어 관련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도 타이어 공기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11년 3월 안전기준을 공포하여 2013년 1월부터 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TPMS: Tire Pressure Monitoring System)를 신규 제작된 모든 승용차와 총 중량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 자동차에는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법제화하였다.

타이어 공기압은 정상사용조건에서 1개월당 약1.8 psi가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3개월이 지나면 10 %가 부족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동차 매뉴얼에서 적정 공기압을 확인한 후 월 1회 정도의 공기압 점검과 보충이 필요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카센터에서 공기압 측정을 하는데, 카센터에 있는 공기압측정기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부정확한 측정기로 공기압을 측정하면 안하니만 못하다. 따라서 일선 카센터에서 사용하는 공기압측정기가 정기적인 점검을 받고 있는지 확인 해볼 필요가 있다.

강두현 기자

오직 품질향상만을 위해 생각하고 노력합니다!

자동차 부품업체의 든든한 지원자!
국가교정검사기관 한국계량계측시험연구소!

본 기관에 의한 계량 측정기의 주기적인 교정은 생산하는 제품의 불량률을 낮추고 제품의 성능을 향상 시킵니다.
항상 생각하며 노력하는 자세로
자동차 부품업체의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품질·기술력 상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교정검사기관
한국계량계측시험연구소
검교정접수 전국번호 1566-1995



기획연재 3탄 · 계측기 관련 성적서, 이제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나가야

콜라스(KOLAS) 성적서 밖에 모르는 심사원들이 문제다

2탄까지의 요약.

- * 소급성이 유지된 성적서는 세계적으로 동일한 효력!
- * 우리나라 성적서 관련 심사제도의 모순!
- *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발행 성적서마저 부정하는 한심한 국내 심사원들!
- *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요건 구비한 기업 자체 성적서를 이제부터라도 인정해 줘야!

성적서는 많은 종류가 있다. 우리는 대부분 KOLAS 성적서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나 사실 ISO-ILAC 성적서, KRISS 성적서, 기업체의 자체 성적서 등 다양한 성적서가 통용되고 있고, 세계적으로 보면 각 기업체의 기근에 맞게 소급성을 유지시킨 많은 성적서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면 왜 콜라스(KOLAS) 성적서만 알고 있는가?

가장 큰 이유는 심사원들이 오직 KOLAS 성적서만 고집하기 때문이다. KOLAS 성적서만 유일한 교정 성적서인 줄 아는 많은 심사원들이, 다른 성적서로 교정검사를 받은 경우 심사통과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각 기업체에서 보면 여러 불리한 상황 즉, 시간적, 경제적인 많은 손실과 경쟁력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각 업체에 있는 품질 담당자들 입장에선 계측기의 소급성과 효율적인 사용이 가장 큰 목적이며, 심사 시 인정만 된다면 그 어떤 성적서로 교정을 받아도 상관없는 것이기에 KOLAS 성적서만 고집하는 비능률적인 면을 이제는 과감히 개선해야한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성적서마저 부정하는 일부 심사원들!

일부 심사원들 중, 심지어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받은 KRISS 성적서의 경우에도 KOLAS 마크가 없다면 KOLAS 성적서로 재심사 받을 것을 요구한다고 한다. 다른 곳도 아닌 우리나라 표준, 단위, 측정의 중심 기관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마저도 그러한 대우를 받고 있으니, 이 얼마나 우스운 상황인가. 정확히 알아야 한다. ISO 규정에 따라 장비와 인력 등 요건을 갖추고 소급성을 유지하면 그 어떤 기관, 업체라도 자체의 기준에 의해 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다. KOLAS 성적서도 그러한 규정에 의한 성적서 중 하나일 뿐이다.

세계적인 단체, 기업체에서는 이미 벌써부터 인정하고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인 GM, BMW, 벤츠, 존슨앤존슨, 산토스 등 수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심사 시, 각 업체의 ISO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춘, 소급성을 유지시킨 자체성적서를 인정해주고 있다. 중요한 건 그들은 KOLAS가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각 기업체의 품질 담당자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심사원들에게 질의를 해야 한다. KOLAS 성적서를 요구하는 것이 어떤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왜 세계화를 역행하는 것인지.. 그리고 심사원들은 알아야 한다. 심사 시에 KOLAS 외의 성적서가 있다면 어떠한 장비로 어떻게 검사했으며 소급성은 어떻게 유지시켰는지를 살펴보는 편이 더 우리나라 산업발전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정민규 기자

“사장님, 협력사 지원금 받아가세요!”

한국자동차산업시험연구소, 검교정검사 지원사업에 이은 소모성 유류비(방청액, 세척제) 지원사업 첫 시행, 최대 3억 원까지 현금지원 수혜..

자동차부품협력사를 기술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비영리기관 한국자동차산업시험연구소(KMIR)에서는 올해도 예년과 같이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검교정검사 지원사업을 통해 협력사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있다. 특히 2009년부터 준비하여 온 소모성 유류인 방청액 및 세척제 지원사업을 올 2/4 분기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한다고 하였다. 단, 검교정검사 지원사업은 2012년 1월 2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2월 29일에 1차 마감하였고, 신청 협력사가 많아짐에 따라 6월 현재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 접수 후 지원사업 대상 업체로 선정되면 비용의 40%까지 현금 지원받는 사항은 동일하다. 금년도 지원유무에 관계없이 2차까지 신청 및 접수된 업체는 내년도 우선 지원대상 업체로 등록된다. 한편, 생산 현장에서 사용되는 소모성 유류인 방청액, 세척제에 대한 지원 시범사업

또한 4월부터 접수받기 시작하였으며, 총 소모 유류액 10억 원 한도 내 최저 20% ~ 최대 30%를 현금 지원한다. 한국자동차산업시험연구소(KMIR) 기술지원 및 기기연구팀장은 “올 초부터 협력사 각 품질팀장 및 유류관련 담당팀장(구매팀, 총무팀, 생산팀 등) 앞으로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며, “혹시 지원금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업주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자동차산업시험연구소(KMIR)의 지원사업은 진행 후 협력사로 직접 현금지원을 하는 만큼 유가 및 원가상승, 인건비 등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받고 있는 협력사에 가장 직접적인 혜택의 지원이 될 것이다. 협력사의 검교정 관련 담당자나 유류(방청액, 세척제)사용 담당자는 지원 내역을 꼼꼼하게 살펴본 후 신청하여 자기 회사가 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원 신청은 검교정검사 지원사업 신청과 마찬가지로, 먼저 우편 송부된 신청서나 한국자동차산업시험연구소(KMIR) 홈페이지에 있는 유류(방청액, 세척제) 사용 현황 조사표 또는 신청서에 기입하여 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기타 문의는 한국자동차산업시험연구소(KMIR) 공식 이메일(E-Mail) kmir@kmir.org 또는 ☎ 1566-9901(전국로)하면 된다.

알기쉬운 법률상식 제3탄



고소 취소 후 다시 고소해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고액의 배당금을 주겠다는 친구의 제안에 속아 수 천 만원을 투자한 나민원씨, 처음 몇 달간 꼬박꼬박 들어오던 배당금은 점차 뜸해지더니 어느 순간 뚝 끊기고 말았습니다. 차일피일 변명만 일삼는 친구를 나씨는 결국 검찰에 고소했고 친구는 그제서야 지불각서까지 써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한번만 더 믿어보자는 생각에 고소를 취소해 준 나민원씨 덕분에 친구는 가벼운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친구의 태도는 돌변했고 두 번씩이나 배신당한 나씨는 다시 고소를 결심합니다. 그런데 수사관님, 고소를 취소한 후에 다시 고소해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다시 고소할 수가 없습니다. 나민원씨 역시 본인의 고소 취소로 친구에게 벌금형 선고가 내려진 이상 같은 사유로 재차 친구를 고소해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라면 ‘처벌을 원한다’라는 취지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실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고소취소의 효력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취소하실 때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특히 강간죄와 같이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는 한번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소를 취소하게 되면 고소권이 소멸

자료 : 검찰청 <검찰 내비게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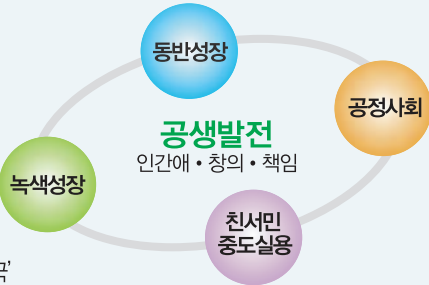


함께 가는 따뜻한 사회
공생발전으로 실천하겠습니다

1만 석 이상의 재산은 모으지 않으며, 찾아오는 손님은 후하게 대접하고, 흉년에는 다른 사람의 논밭을 사들이지 않는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부(富)를 이어온 '경주 최 부자집'의 전통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전통에 기반해 국가와 기업, 개인이 모두 함께 발전하는 아름다운 동행, 바로 '공생발전'입니다.

빈부차를 없애고 경제발전의 혜택이 전 국민에게 돌아가며, 더불어 고용도 증가하는 '다 함께 잘사는 더 큰 대한민국'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는 따뜻한 마음이 모두가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듭니다.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제4탄 '1kg이라도 더 가볍게' 차체경량화 기술

고유가 시대에 살펴보는 연비 향상법

현대기아차가 연비를 높이기 위해 선택한 또 다른 기술력은 차체경량화다. 주요 부품에 보다 가볍고 내구성은 강화된 소재 적용했으며 양산차량에도 이 같은 소재를 적용했다.

우선 쏘나타, K5에 고강도 플라스틱인 '글라스 버블'을 채택했으며, 일반 고무보다 20% 가벼운 '클레이 나노복합재'도 사용했다.

현대기아차 측은 차량 경량화 기술의 핵심은 '핫스탬핑' 공법이라고 설명한다. 뜨거운 상태의 철강소재를 도장을 찍듯 프레스로 성형한 뒤 냉각시키는 방법을 쓴다. 이렇게 되면 원소재는 가공 전에 비해 2~3배 정도 높은 강도를 지니게 되며 25% 가량의 경량화 효과를 가져와 연비개선이 이뤄진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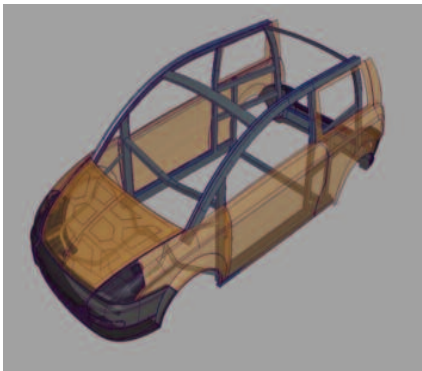
현대기아차 기술연구소 관계자는 "쉽게 생각한다면 과거 대장간에서 쇠를 불에 달궈 두드리고 물에 식히기를 여러 번 하는 담금질을 통해 철기구를 만든 원리를 현재의 열처리 기술에 적용한 것으로 연상하면 된다"

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핫스탬핑' 공법은 차량의 루프 사이드 레일·센터필라·센터플로어 멤버·범퍼 등에 사용하고 있다"며 "현대차는 현대하이스코와 합작으로 개발해 국내 판매 차량과 해외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현대차는 신행 그랜저에 이 같은 '핫스탬핑' 공법을 적용해 리터당 12km에 달하는 연비를 실현했다.

이밖에 고장력 강판 및 하이드로 포밍 공



법을 통해 연비개선효과를 발휘한다. 실제로 신행 에쿠스의 차체에는 고장력 강판을 75%까지 확대 적용해 차체 구조의 강성을 높이는 한편 경량화에 성공했다. 고장력 강판은 엔진룸 부품의 84%까지 되고 있다.

제네시스 역시 차체 고장력 강판 적용 비율이 74.5%에 이른다. 또한 에쿠스와 제네시스에 적용된 전기유압식 파워스티어링(EHPS; Electro-Hydraulic Power Steering)은 기존 엔진에 연결된 펌프 대신 조향 시에만 엔진과 독립된 전기모터로 유압 펌프를 구동하여 조향 보조력을 발생시켜 높은 연비를 나타나게 한다.

현대기아차 기술연구소 관계자는 "올해 세계 자동차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열쇠는 고연비 차량개발에 있다"면서 "글로벌 자동차업체와의 연비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 현대기아차는 엔진이나 차체 소재, 디자인 등 자동차 주요 구성품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영훈 기자

이동통신사들, 자동차 업계가 필요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 중인 이동통신사들이 자동차 업계와의 IT 컨버전스(융합)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각 이동통신사에 따르면 매출 및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통신비 인하 압박을 받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이동통신사들은 수익 극대화와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의료, 교육, 금융, 미디어 등으로 사업 범위를 넓히면서 자동차 업계와의 협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통신사의 무선 네트워크 운영 기술과 자동차 제조사의 기술 노하우가 접목되는 텔레매틱스(Telematics)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텔레매틱스란 자동차와 스마트폰을 연결해 원격 시동, 원격 문 열림, 차량 진단 서비스, 길안내·위치 정보 제공, 오디오·비디오 재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KT는 올 초부터 텔레매틱스 사업 추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올해 1월 글로벌기업고객부문에 M2M(사물지능통신)담당부서를 신설하고 시장을

BM(Before Market)과 AM(After Market)으로 나눠 공략하고 있다. BM은 차량 출시 전부터 자동차 제조사와 해당 모델에 대한 서비스를 개발해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AM은 이미 출시돼 유통되고 있는 기존 차량에 서비스를 제공해 스마트화 하는 것이다.

KT는 BM시장 공략을 위해 2005년부터 텔레매틱스 전용폰 출시 등 현대자동차와 협력해 왔다. 현재 5만 여 대 차량이 KT의 3세대(3G)통신망으로 현대차의 텔레매틱스 서비스 '텔레매틱스'와 '블루링크'에도 통신모듈을 탑재해 원격 시동·냉난방 가동·운행기록 등의 서비스를 업무로 제공하고 있다.

SK텔레콤은 텔레매틱스 서비스 '유보(UVO)'를 앞세워 자동차 업계와의 IT융합 사업을 본격화 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기아차와 K9에 탑재하는 '유보 서비스 사업 협력 계약 조인식'을 맺었다. 지난달 10일부터 기아차와의 협력 분야를 확대하여 4세대 LTE 고



객을 대상으로 자동차 유지 관련 패키지 서비스 '오토 라이프 팩'과 회사간 멤버십 연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LG유플러스도 자동차 업계와 다양한 형태의 사업협력을 추진 중이다.

올해 1월 카 셰어링 분야에 진출한 LG유플러스는 동국대학교 카셰어링 전문 사회사인 한국카셰어링과 위치기반서비스(LBS) 등 카셰어링에 필요한 솔루션·서비스를 공동 개발 중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여러 형태의 사업협력을 준비 중"이라면서 "막바지 작업 중이다. 획기적인 것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생활정보

화장품, 유효기간에 주목하세요!



종류	개봉전	개봉후	보관시 주의점
스킨로션	3년	1년	자외선이 없는 곳에 보관, 서늘한 곳에 보관
에센스,세럼	2년6개월~3년	6개월	변질되기 쉬우므로 수시로 입구를 깨끗하게 닦고 서늘한 곳에 보관
크림	3년	6개월	유분이 많으므로 뜨거운 곳을 피한다
아이크림	2년	6개월	너무 낮은 온도에서는 분리될 위험이 있다
자외선차단제	3년	6개월~1년	기간이 오래되면 자외선 차단 지수가 떨어진다
메이크업베이스	3년	1년	상온에 가까운 서늘한 곳에 보관
컴팩트파우더	5년	3년	수분이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 펴프는 1~2주에 한번씩 세척한다
아이세도우	3년	1년	햇볕이 없는 곳에 보관
아이라이너	3년	1년	오염되기 쉬우므로 사용후 뚜껑을 닦아준다
마스카라	3년	6개월	오염되기 쉬우므로 사용후 뚜껑을 닦아준다
립글로즈	3년	6개월	직사광선과 고온은 피한다
립스틱	3년	1년	직사광선과 고온은 피한다
클린징제품	3년	1년	오일은 상온에서 보관, 크림은 스파출라를 사용하고 물기에 주의한다
팩제품	3년	1년	냉장고에 보관

남자도 화장하는 세상이 왔다. 요즘은 남녀노소 누구나 아름다움을 얻으려 많은 노력을 한다.

특히 피부에 대한 많은 관심이 늘어나면서 동안피부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다. 피부에 양보하라는 유행어까지 나올 정도로 이제 화장품은 얼굴의 단점을 가리기 위한 방법뿐만 아니라 피부에서도 건강을 찾으려는 욕구의 수단이 되었다. 하지만 화장품에 쏟는 관심만큼 화장품에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화장품의 유통기한은 기능에 따라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개봉을 한 뒤로부터 짧게는 3개월 길게는 3년 이상으로 본다. 미국의 화장품 컨설팅 회사인 코스메테크 연구소는 방부제 성분이 거의 들어가지 않은 화장품의 유통기한은 최대

6개월이라고 밝혔다.

스킨, 로션은 서늘한 곳에 보관하며 유통기한은 개봉 전 3년, 개봉 후 1년이다. 여성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파우더의 경우, 유통기한이 개봉 후 3년이며 아이라이너나 마스카라는 6개월마다 새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이 위생적이다. 특히 이 제품들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화장품인 만큼 유통기한과 위생에 많은 관심이 기울어져야 한다.

사용자가 권장유통기한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화장품이라도 피부에 독이 될 수 있다. 어떻게 화장품을 보관하고 유지시키느냐에 따라 고기능성 화장품이라도 변질될 우려가 있으며 유통기한을 지키면서 서늘한 곳에 잘 보관하는 것이 화장품이 외부에 의해 오염되지 않는 방법이다.

안지훈 기자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행복의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은 시원하게, 부패행위는 깨끗하게,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은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고충민원 110 ·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 부패신고 1398

애정남 (애매한 교통사항을 정해주는 남자)

4. 1종 보통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면허로 오토바이 운행이 가능한가요?

☞ 제1종 보통 면허와 제2종 보통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는 별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지 않아도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125cc 초과되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종 소형면허를 추가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보톡스, 자연의 선물인가? 독인가?



얼마 전, 성형외과와 피부과 광고에서 [5월 가정의 달, 어버이날 효도선물로 보톡스 주사! 라는 문구를 본 적이 있다. 성형 천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보톡스 주사는 성형도 아닌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간단한 시술일 뿐이라고 한다. 젊음과 아름다움을 향한 욕심이야 인간이라면 모두가 한마음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듣고 보는 보톡스 시술의 '보톡스'란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톡스'는 원래 클로

스트리디움 보툴리눔(Clostridium botulinum) 박테리아에서 생성되는 보툴리눔 독소(botulinum toxin)를 기초로 하여 개발된 의약품이자, 미국 제약 회사에서 사용하는 상표명이다.

사실 보톡스가 처음 발견된 곳은 소시지의 식중독균에서였다. 1800년대 초, 독일에서는 식중독이 발생해 수백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 후 식중독의 원인을 조사해보니 소시지나 통조림에서 많이 자라는 보툴리눔 독신이라는 독소가 신경마비를 일으켰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상한 소시지속 세균, 보툴리눔 독신에서 보툴리눔은 라틴어로 바로 소시지를 뜻한다. 이처럼 상한 소시지나 통조림에서 발견된 보툴리눔 독신은 근육을 마비시키는 작용을 한다.

보툴리눔 독소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C. botulinum)이란 혐기성 박테리아에서 분비되는 독소로 모두 7개의 종류가 있으며 이 중 보툴리눔 독소 A형과 B형이 정제되어 의학적으로 사용된다. 이 독소는 운동 신경 말단 부위에서 아세틸 콜린의 분비를 억제하고, 이를 통해 해당 근육을 마비시킨다.

이런 특징이 의학분야에 이용되기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눈꺼풀 경련이나 사경(목의 근육들이 수축하여 목이 한쪽으로 기운 듯 부자연스러운 상태)과 같은 근육긴장이상을 치료하는 약제로 사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뇌성마비 환자의 굳어진 근육을 풀어주는 치료, 땀이 나는 신경전달

물질을 억제시켜주는 다한증 치료와 신경물질 분비 억제로 전립선 비대증 치료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던 중 보툴리눔 독소를 주입한 후 그 주위의 주름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이를 미용적 주름 치료에도 이용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생산되는 보톡스는 얼굴 떨림, 눈꺼풀 경련, 근강직 등의 치료 목적보다 주름 치료, 사각턱 교정술 등의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양이 훨씬 많다고 한다.

보톡스 주사 후 대략 3~7일이 경과하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단, 치료 상태에 따라 2~6개월 정도만 지속되므로 효과를 유지하려면 반복적으로 시술받아야 하는 단점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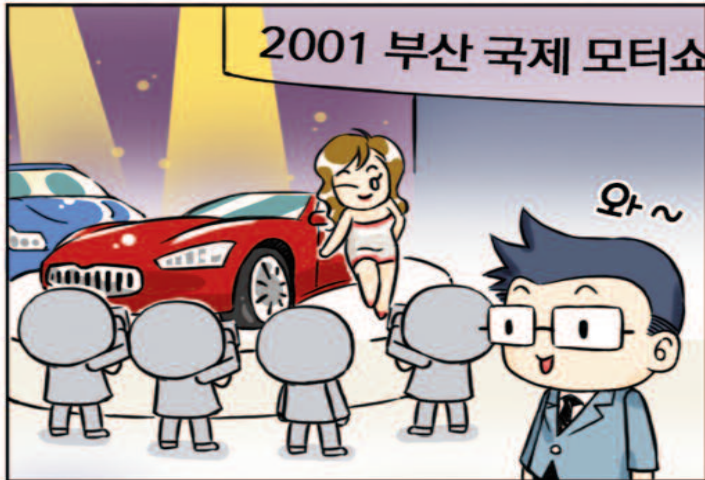
보툴리눔 또한 화학물질이므로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 있다. 해당 근육의 과도한 마비, 원치 않는 근육의 마비, 독감 유사 증상 혹은 피로 등과 같은 전신 영향 뿐만 아니라 미용적 치료 시 두통, 주사 부위 통증, 감염, 홍반, 부종, 메스꺼움, 어지럼증, 국소적 근 탈력감, 멍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젊고 아름답게 보이려는 사람들이 있는 한 보톡스의 발견은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을 것이다. 하지만 60 kg 몸무게를 가진 성인인 경우 약 12~18 ng 정도가 치사량인 강력한 독성 물질인 만큼 불법시술과 같은 무분별한 사용이나, 반복적인 사용은 양지해야 할 것이다.

윤선아 기자

4컷 만화

부산 국제 모터쇼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세상에서
가장큰선물



바다에서 열리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 [2012. 5. 12 ~ 8.12]

내 아이에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감동을 선물하세요
2012 여수세계박람회에서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초대합니다
세계 100여 개 국가의 세계적인 볼거리를 통해 아이들은
생각의 깊이가 달라지고, 꿈의 크기가 커질 것입니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입니다

공식홈페이지 www.expo2012.kr
안내전화 1577-2012

2012 여수세계박람회

이달의 여행지

창녕 우포늪

얼마전 람사르총회가 열린 창녕의 우포늪은 생성연대가 약 1억 4천만년전으로 추정되며 약 70만평의 규모에 1,000여종의 생명체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최대 자연 습지이다. 소의 머리를 닮은 우항산이 늪에서 물을 마시는 듯 하다고 해서 우포(牛浦)늪이란 이름을 갖게 됐다. 창녕 사람들은 우포를 굳이 ‘소벌’이라 부른다고 한다. ‘소(牛)를 먹이거나, 소 모양의 넓은 벌판’이라는 뜻이다.

1997년에 생태계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천연기념물인 노랑부리저어새, 큰고니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동식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우포늪은 국내에서 두 번째로 람사르습지로 등록되었다. 첫 번째는 강원도 대암산 용늪으로 비무장지대(DMZ) 안에 위치한 고층습원이다. 용늪과 달리, 우포늪은 시민단체(환경운동연합)의 노력에 의해 람사르습지로 등록되었으며, 낙동강을 끼고 발달한 국내 최대의 내륙습지이다.

우리나라는 자연호수나 늪이 아주 적기 때문에 우포늪과 같이 이런 방대한 면적을 가진 습지는 생태적으로 대단히 중요하고, 또 수심이 얕고 계절적으로 특히 여름에 홍수로 인하여 많은 물들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땅과 물이 접하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을 할 수 있어서 생물 다양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포늪은 사진이 취미인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명당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포의 새벽 물안개 사진은 동호회에서도 매주 다녀갈 만큼 인기가 높다. 이번 주말에는 카메라를 들고 자녀들과 창녕우포늪을 찾아서 다양한 생태생물에 대한 공부와 우포 물안개의 포근함에 푹 빠져보는 건 어떨까?

맛 집

우포의 가장 큰 먹거리는 토종붕어. 허가받은 사람만이 우포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한다. 겨울철에 특히 큰 씨알의 붕어가 많이 난다. 사지포 제방 들기 전에 있는 우포횃집은 붕어찜과 매운탕을 맛갈스럽게 낸다.

김다현 기자



스포츠 이야기

주연이 된 조연. 페이스메이커의 우승



우리는 스포츠에서 항상 자신이 주인공이 되기를 꿈꾼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항상 주연이 아닌 조연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빛내기도 한다. 그들 중 페이스메이커가 있다. 얼마 전 영화에서 소개되었듯이 페이스메이커란 마라톤에서 자기 팀의 우승후보가 페이스를 조절해서 달릴 수 있도록 서포터를 해주는 선수를 말한다. 자신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뛰어야하는지 잘 모르는 마라톤에서 페이스메이커는 그 선수가 최적으로 될 수 있도록 앞에서 끌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렇게 때문에 페이스메이커의 경우에는 우승은 물론 완주조차도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여기에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마라톤을 완주했을 뿐만 아니라 대회에서 우승을 한 선수가 있다. 바로 1999년 로마마라톤에서 우승을 한

케냐의 필립 타누이라는 선수다. 그는 필립 치르치르의 초반 레이스를 이끌어주기 위해서 고용되었으나 결승선을 8km남기고 막판에 속도를 올려 2시간 9분 56초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한 것이다. 그를 고용한 치르치르 선수는 타누이에게 추월을 당해서 3위를 하는것에 그쳤다.

페이스메이커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우승하는 경우는 흔치 않으나 새로운 스타를 발굴해내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열린 동아서울국제마라톤에서도 91년 대회에 나왔던 황영조 선수가 페이스메이커로 나와 풀코스를 완주하며 3위로 골인한 적이 있다.

유경한 기자

사설

근로시간 단축 철회, 정부의 옳은 방향 선회에 찬성



정부가 기업체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내 입법을 추진해온 근로시간 단축 안을 사실상 철회했다.

정부는 휴일 근로시간을 주 12시간의 법정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킨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일자리가 늘뿐 아니라 소비도 촉진되는 등 사회 전반적인 선순환이 될 것"이라고 말한 후, 근로시간 단축 검토를 지시하면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추진 의지를 드러내기 시작했었다.

우리 자동차업계 대변자인 한국자동차신문(KMN)을 비롯한 많은 언론자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파급효과를 지속적으로 지적한 결과, 지난 5월 22일 청와대 회의 후,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안 입법화를 보류하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국내 근로자의 근로시간(2010년 기준)이 OECD 회원국 평균 1749시간보다 360시간 이상 길다고 한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소비 촉진 등을 기대한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이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의 신규채용을 부추겨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며, 이는 고용유연성이 미흡한 국내 기업들에 심각한 경영난을 불러올 수 있다. 더구나 중소기업체들의 경우 경영난 및 극심한 인력난으로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 시, 주당 전체 근로시간은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23.5% 감소한다.

이는 근로자의 실질 임금 저하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다는 처음의 취지에 부합하느냐는 문제와,

근로자의 임금보전 요구 발생 시, 노사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근로자들 또한 더 높은 임금을 쫓아 빈번한 이직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기업은 숙련공을 구하기 힘들게 되어 인력난은 더 심화될 것이다.

또 우리나라처럼 근로자를 고용하면 해고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근로시간을 강제로 단축해 기업들에 추가 고용을 압박하면 기업들의 해외 이탈을 부추길 수 있어 본래 취지와 달리 고용을 더 줄일 소지가 있다는 정부 타부서 관계자의 지적 또한 공감한다.

근로시간을 줄이면 삶의 질 향상과, 추가 고용으로 일자리 나누기가 이뤄질 것이라 기대하지만 그것은 사실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이나 생산 현장 상황을 잘 모르는 이들의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부가 지금이나마 향후 일어날 엄청난 부작용을 인정하고 근로시간 단축안을 백지화 한 것은 다행한 일이라 본다.

휴일근로제한을 포함한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는 우선 기업체 생산현장 상황에 비춰보아야 하는 것으로, 글로벌 위기를 접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많은 기업들이 국제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섣부른 추진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韓國自動車新聞(KOREA MOTOR NEWSPAPER)
發行人:洪明熙/編輯人:洪明熙/印刷人:신진사진인쇄/登錄番號:沙上라2011-1
代表番號:1566-9901(案內)/Internet住所:www.kmn.pe.kr/間別:月間,有價紙
住所:釜山廣域市 沙上區 毛羅洞 728-10番地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고맙다. 친구야!

마음까지 전해주는 우체국택배,
내 마음의 명품택배입니다

대한민국 명품택배!

우체국 택배



• 전국 다음날 배송 • 실시간 인터넷 조회 • 고객불만 보상

전국 어디서나 1588-1300

인터넷 접수 **www.ePOST.kr**

2012년 5월 15일 한국자동차신문(KMN)이 창간되었습니다.

사실 그대로를 보여주고 색다르고 신선한, 그리고 다양한 소식을 전달하며
자동차업계 현장의 기술전문 기자들을 통해 자동차에 관한 전문적인
정보를 알려드리고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채널로,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업계와 소통하는
유익하고 알찬 신문이 되겠습니다.



한국자동차신문(KMN)
KOREA MOTOR NEWSPAPER

본지는 독자들의 충족을 위해
대판 및 중판(국내 유력지:중앙일보)을
병행 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